

이 주의 투자 포인트 (4월 20일 주)

이번 주 시장은 연준 인사 이슈와 SK하이닉스와 테슬라 등 주요 기업의 연이은 실적발표가 핵심입니다. 케빈 워시 인사청문회는 결과보다는 불확실성 해소 시점이 중요하고, 당분간은 지연 가능성 속 변동성 장세가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케빈 워시의 물가 및 금리 발언에 시장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실적에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황 확인이 중요하며, 기대치 상회 시 코스피 상승 정당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중등 리스크는 현재 완화 흐름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의 노이즈는 불가피한 가운데 전반적으로는 실적 중심 흐름이 주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1. 케빈 워시 인사 청문회 예정 - 금리 방향성 발언에 주목

어떤 뉴스이고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한국시간 기준 21일 화요일 23시 이후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 현재 상원 구도를 감안하면 인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전원 반대할 경우 공화당에서 단 한 명만 이탈해도 인준이 부결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시장은 빠른 통과보다는 '지연 시나리오'를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파월 의장이 임기 종료 이후에도 임시 의장 혹은 이사로 잔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책 연속성에 대한 변수도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준 지연 가능성"은 현재 시장이 가장 유력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나리오로,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변동성만 확대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 시장의 관심은 "정책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되느냐"에 더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기대치는 "2026년 상반기 내"가 가장 유력한데 (폴리마켓 기준), 이보다 늦는다면 정책 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 케빈 워시의 물가와 금리에 대한 발언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케빈 워시가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과 연준의 독립성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비둘기적 스탠스가 약화되거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식시장은 다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SK하이닉스, 테슬라 등 국내/미국 주요 실적 발표

어떤 뉴스이고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4월 23일 예정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 코스피 전반의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높은 기대치를 SK하이닉스도 뛰어 넘는다면 코스피 지수 상승을 지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 SK하이닉스 1분기 영 이익의 경우 시장 컨센서스(평균값)는 35조원으로 전망되는데, 최근 발표된 애널리스트 예상치의 경우 40조원에 근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서버D램과 eSSD 가

격 급등,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등을 감안 했을 때 강한 실적이 예상됩니다.

-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EPS 전망치 상향과 함께 상승 추세가 강화, 반도체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한 비중 확대 전략 유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국 시간 22일 수요일에는 테슬라, 램 리서치, GE Vernova, IBM, Vertiv, ServiceNow, 23일 목요일에는 인텔, SAP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자율 주행과 로봇틱스를 포함하는 AI 기술 발전,
 - 반도체 수요와 공급 병목,
 - 데이터센터 수요,
 - 기업용 소프트웨어 수요와 AI에이전트의 영향 등 시장에서 논의되는 핵심 쟁점들에 대해 기업의 실적과 가이드스, 경영진 발표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 이 외에도
 - 소비와 경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23일, 미국시간), P&G와 코카콜라 (24일, 미국시간),
 - 우주/방산 산업 추이와 이란 전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RTX 와 Northrop Grumman(21일, 미국시간), 보잉(22일 미국시간), 록히드마틴(23일 미국시간)의 실적 발표에도 시장이 반응할 전망입니다.

Compliance Note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